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2011 VOL.21 07+08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맑은 바다가 밀려오는 푸른 풍경

시름은 파도 넘어 날려 보내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가 봅니다.

뜨거운 열기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무거운 추 처럼 마음을 누르던 일도

아래로 가라 앉습니다.

청렴한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희망공감

기획특집

04 Special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으로 국제수준의 반부패 인프라 조성하자

08 Global Issue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국민신문고

12 ACRC Issue 1

가평 읍내 군 비행장 폐쇄 · 이전 합의

14 ACRC Issue 2

다산이 남긴 '청렴 정신'을 찾아서

16 국민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 제시

18 국민에 의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파워블로거 커넥션'

20 국민을 위한

마음을 활짝 열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24 지켜줘요! 국민권익!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울산 '홍명고' 이전 물꼬

26 오피니언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하는 길

행복누림

28 우리 문화

성곽으로 그려낸 정조(正祖)의 꿈, 수원화성

32 문화지킴이

사람과 사람 그 안의 감동을 담는 여행사진작가, 신미식

36 법과 권익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으려면

38 건강한 삶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40 카메라에 비친 풍경

자연의 파노라마 펼쳐지는 영월 동강으로

44 포커스 온

딸의 영혼 위로하는 아버지의 정당방위 <엣지 오브 다크니스>

46 또 다른 세상

쓰레기 마을의 작은 영웅 <안녕, 베할라>

48 ACRC News

50 편집 후기

발행일 2011년 8월 24일(격월간, 통권 21호, 비매품)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우경종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마근동)

전화 02 360 2761 팩스 02 360 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성우애드컴 02 890 0904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Bimonthly Magazine of ACRC

07 + 08

2011 VOL.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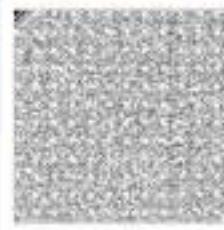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글 편집실 사진 김현구



김영란 위원장은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열린 심포지엄에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각계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으로 국제수준의 반부패 인프라 조성하자

– 권익위,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맞아 개최한
기념 심포지엄 지상중계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9일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부패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동안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보는 반부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부패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 시민사회의 입법청원, 입법과정에서 드러난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등의 진통을 거쳐 2001년 7월 제정된 부패방지법 탄생 10주년을 맞아 반부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영란 위원장, “청렴 문화 확산 위해 각계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심포지움에 참석한 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반부패 인프라를 조성하고, 사회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각계가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탁 수수금지법” 조기 제정 촉구

첫 발표자로 나선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부패방지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부패방지 제도의 발전방향’ 이란 논문을 통해 부패방지기구가 조사권이 없고 사정기관의 견제

“사정기관 자체가 부패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의 사정기관을 사정할 수 있고 권력형 부패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로 활동이 위축되어 권력형 부패 등 큰 부패의 개선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며, 부패방지 전담기구에 독립성과 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정기관 자체가 부패한 오늘날의 상황에서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존의 사정기관을 사정할 수 있고 권력형 부패를 다룰 수 있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 전담기구 내에 국 단위 소규모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익위의 반부패 전담기구로의 재개편과 현재 권익위가 추진 중인 가칭 ‘공직자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조치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기관의 부패 처벌 실적 청렴도 측정 평가에 반영할 것”

서울대 행정대학원 금현섭 교수는 ‘청렴도 측정방식의 진단을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권익위가 지난 9년간 추진해 온 청렴도 측정이 각급 기관의 자율관리와 개선노력을 유도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패사건이 발생한 기관의 청렴도가 높게 나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급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실적을 지수화해서 청렴도 평가에 반영하고, 전문가와 일반국민으로 평가주체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인식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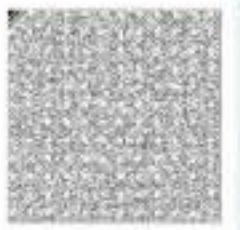


01 부패방지법 제정 10년간 반부패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02 심포지엄이 시작되기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김명란 위원장과 참석자들.

03 토론 중간 쉬는 시간에도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참석자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를 비롯한 각계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에 공정경쟁 질서가 확립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청렴도가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

04 참석자 모두가 반부패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심포지엄에 임해, 현장 분위기는 사뭇 진지했다.

05 심포지엄이 시작되기 전 김영란 위원장은 전직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또한 업무성격이 상이한 기관을 동일척도로 측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 성격 · 업무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기관의 본부 중심으로만 평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실 · 국 등 하부조직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각각 내놓았다.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해충돌부분은 법률로 정해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성과의 반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행위기준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충돌방지 등 중요한 일부기준은 법률로 상향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행위기준의 명확한 세부기준과 해석 지침을 별도의 하위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중심되어 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주문

한편 심포지엄이 개최되기 전에 이날 프레스센터에서는 역대 구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강철규, 이남주, 정성진, 이종백 등과 현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양건, 이재오 위원장이 모두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국민권익위가 중심이 되어 부패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조성하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반부패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개선안과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 향후 반부패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튀니지, 나이지리아, 칠레, 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컨설팅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신문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3월에는 미국공공행정학회(ASPA)로부터 학술세미나 참가요청을 받아 국민신문고를 전 세계 석학들에게 소개하였고, 6월에는 전 세계 공공행정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이처럼 국민신문고가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자.



2011 UN 공공행정상 시상식 개최

지난 6월 23일 탄자니아 다렛살람(Dar es Salaam)에서 2011 UN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시상식 기간 중 전 세계 공공행정 전문가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공공행정에서의 변혁적 리더십과 정부의 혁신(Transformative Leadership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Innovation in Governance)’을 주제로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신문고는 UN 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UN은 공공행정의 날(6.23)(UN Public Service Day)을 제정하여 매년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의 우수한 공공행정 사례에 대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 사례는 UN의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각국에 확산될 기회가 주어진다. 권익위에서는 한국 전자정부의 대표사례인 국민신문고를 UN 공공행정상의 ‘정부 지식관리 향상(Advancing knowledge management in government)’ 분야에 ‘e-People System, Knowledge Management for People’s Voice’(국민신문고, 국민의 목소리를 위한 지식경영)로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UN은 공공행정의 날(6.23)(UN Public Service Day)을 제정하여 매년 이 날을 기념해 전 세계의 우수한 공공행정 사례에 대해상을 수여하고 있다. 수상 사례는 UN의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등 각국에 확산될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에서 우수성 인정받아온 국민신문고

이전에도 국민신문고는 ‘프랑스 세계전자정부대회(World e-Gov Forum) Top 10’ 선정(2006년 10월), 유럽전자정부 및 IT컨퍼런스(2008 Europe Electric Government and IT Conference [e-Challenge 2008]) 최우수상 수상(2008년 10월) 등 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아 왔다. 이번 UN 공공행정상 수상을 계기로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한층 고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탄자니아 다에살람에서 열린 2011년 UN공공행정상에서 ‘정부지식관리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UN공공행정상에서 수상한 ‘정부지식관리분야’ 우수상 상장 모습

“국민신문고는 ‘프랑스 세계전자정부대회
Top 10’ 선정, 유럽전자정부 및 IT컨퍼런
스 최우수상 수상 등 해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될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국민신문고시스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원행정 프로세스가 개발도상국 등에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의 모든 온라인 민원·제안·정책토론 신청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범정부 온라인 소통시스템으로, 일평균 10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에 축적되는 연간 80만 건의 민원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UN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행정 프로세스의 우수성을 인정해 UN공공행정상을 수여한 것이다.

북아프리카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인정

북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는 이러한 국민신문고의 선진 소통행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월드뱅크(World Bank)에서는 북아프리카 정국 혼란의 원인을 정부-국민 간 소통 부재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비용낭비를 국민신문고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빈번하게 제기되는 동일·유사 민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 등에 제출되는 민원과 제안 등에서 국민의 뜻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각종 정책과 제도에 국민의 목소리를 사전에 반영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민신문고에 등록·축적된 민원·정책 Q&A를 국민들이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과 국민신문고에 연계시켜 제공



“월드뱅크(World Bank)에서는 북아프리카 정국혼란의 원인을 정부-국민 간 소통 부재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신문고를 고려하고 있다.”

- ①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정부지식관리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는 박계옥 민원분석심의관
- ② 세계 각국, 특히 북아프리카 국가 등에서는 국민신문고의 선진 소통행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 ③ 지난 6월 23일 탄자니아 다에살람에서 개최된 UN공공행정상. 시상식 기간 중 전 세계 공공행정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03

하고 있다. 민원 Q&A란 국민신문고에 반복하여 제기되는 질의민원의 내용과 처리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자료를 말하며, 정책 Q&A란 각 부처에서 신규정책 등 발표 시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의 사례로 작성한 자료를 말한다. 2011년 6월말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민간포털에 97,000여건의 Q&A 자료가 등록되어 일평균 조회 수는 87,000여회에 이르고 있다. 또한 민원 Q&A를 민원신청 전에 자동 표출시켜 민원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15.8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e-Democracy 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의 제도

100년 전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는 우리나라 정치·경제·문화 등 거시적 사회체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미시적 사회체계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라는 한국의 전통적 민본사상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The People's Voice is the Voice of Heaven'으로 재탄생해 전 세계 e-Democracy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국민신문고의 선진 쌍방향 소통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적 이슈화 된 유럽에서는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이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신문고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반기부터 정책토론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민참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현안,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상용화, SNS의 발달, Web 3.0의 도래에 맞춰 앞으로 다가올 'Many Hands' 시대를 앞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 가는 국민신문고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가평읍내 군 비행장 폐쇄·이전 합의

- 국민권익위, 가평군 주민 58년 숙원 현장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며 일하고 있다. 수많은 현장조정회의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빨리, 그리고 원활하게 국민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같이 국민권익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권익위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 01 현장에서 답을 찾고 있는 김대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경기도 가평군 읍내리 軍 운전교육장에서 가평 헬기장 폐쇄 및 차량연습장 이전 집단민원에 대해 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02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경기도 가평군청 회의실에서 가평헬기장 폐쇄 및 차량연습장 이전 요구 집단민원을 제기한 100여명의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헬기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을 이전하는 합의안을 성사시키고 있다.
- 03 항공에서 바라본 가평 지역 시가화예정용지와 현 운전교육장의 모습

“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10회의 현장조사와 12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였고, 군(軍) 부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로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58년 만에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

군 비행장 폐쇄 요청한 가평 주민, 이유는?

1953년 가평군 가평읍 시가지 가장자리에 설치된 군(軍) 비행장이 폐쇄된다. 해당 비행장은 1975년부터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을 통해 비행장이 폐쇄되고 운전연습장이 이전하게 되었다.

가평비행장은 1953년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작전환경 등의 변화로 1975년부터 지금까지 비행장이 아닌 군(軍) 차량 운전연습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가평읍 지역 주민 438명은 ‘비행장 및 운전연습장으로 인해 가평읍 시가지가 발전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비행장 폐쇄와 운전연습장을 이전해 달라는 집단 민원을 낸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22일 오후 3시 가평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과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정주교 공병부장, 민광철 육군 제3야전수송교육단장, 이진용 가평군 군수, 방기성 경기도 행정 제2부지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식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군(軍) 부대는 가평비행장을 폐쇄하고 운전연습장의 이전에 동의하며 가평군은 운전연습장 이전에 따른 각종 토지와 시설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이전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합의안을 마련해 중재에 성공했다.

권익위, 58년만에 주민 불편 해소 ‘쾌거’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대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권익위가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 동안 10회의 현장조사와 12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였고, 군(軍) 부대 측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결과로서, 장기간 지속되어온 주민불편이 58년 만에 해소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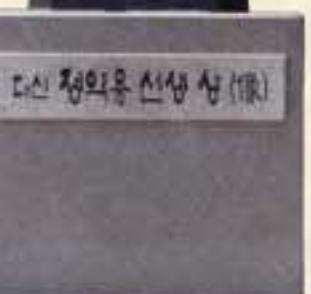
이번 합의안에 따라 운전연습장 이전 관련 세부 이행합의서(MOU)가 체결되면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전이 완료되면 기존 부지는 도로와 주거지역, 공원 등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 김현나 사진 김현구



다산(茶山)이 남긴 '청렴(淸廉) 정신'을 찾아서

- 2011 서울·경기지역 청렴 동아리 발대식



최근 공직사회 전체에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청렴의 섬'으로서 바른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각 기관 청렴 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대식을 가졌다. 올해가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해라 더욱 뜻 깊은 자리였다.



"청렴한 리더가 진정한 리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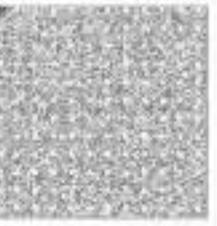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목민(牧民, 백성을 다스리고 기르는 지방행정관)을 할 수 있었던 자는 없었다"라고 썼다.

어느 나라도 공직사회 부패도가 그 사회의 청렴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처럼 중요한 청렴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실학박물관에서 '2011 서울·경기 지역 청렴 동아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 경기 지역 95개 기관에서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배격에 대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어진 인사말씀에서 권의원 김의환 부패방지국장은 "공직생활한지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청렴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된 것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라면서 "오늘 이 만남을 시작으로 공직자로서 윤리와 청렴 의식을 잘 가꿔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청렴 동아리는 전국적으로 403개 기관에서 1,827개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서울·경기지역 동아리는 전체의 56.2%. 동아리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 전체적으로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탄생했다. 이날 모인 청렴 동아리 회원 모두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들을 선정해 솔선수범할 것을 결의했다. 발대식이 끝난 후에는 모두 다산생가로 이동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날 나눈 청렴의 주제를 홍보했다. 각종 영화페리티 포스터가 전시(서울세관 지원)됐으며 홍보물(부패방지국,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과 기념품(부패방지국, 서울세관) 등도 전해졌다. 회원들은 다산유적지 일대를 돌아보며 청렴·검소한 목민관의 정신을 배움과 동시에 다산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다.





HOPE EMPATHY

희망공감

국민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 제시

국민에 의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파워블로거 커넥션'

국민을 위한

마음을 활짝 열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켜줘요! 국민권익!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울산 '홍명고' 이전 물꼬

오피니언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하는 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주대책대상자의 기준 제시

- 생활의 근거지로서 거주하던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하였다면
건물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 곤란을 겪었던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합리적인 재결 덕분에 제대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도 권익위 '중행심'에서는 곤란한 처지에 놓인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재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주대책대상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 상대로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행심'이라 함)는 지난 4월 살고 있던 주거지 일대가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돼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주대상자가 자신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주택지 공급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주대책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번 재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의 대구테크노폴리스 지방산업단지 예정지구에 편입된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주윤환 씨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비롯됐다. 청구인 주윤환 씨는 1989년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금리에 있는 가옥을 매수하여 식당을 운영하



“ 이번 재결은 향후에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이주대상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앞으로 이주대상자들이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길 바래본다. ”



다가 1996년경 폐업을 하였고, 이후로는 별다른 수입 없이 노부모와 함께 위 가옥에서 살아 왔는데, 청구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지방산업 단지가 들어서게 되어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대신 주윤환 씨는 공익사업으로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신도 그와 같은 혜택을 받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주윤환 씨의 기대와 달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주윤환 씨가 살고 있는 가옥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점포’로 지정되어 있어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씨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주윤환 씨는 이미 오래 전에 식당을 폐업하였고, 이후로는 주거용으로만 가옥에서 생활해 왔는데, 단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주대책대상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함
중행심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78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지를 잃게 되는 이주자를 위해 생활보장의 관점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함에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생활의 근거지로서 거주하던 건축물을 공익사업에 제공한 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이주대책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전 주거환경에 상응하는 생활보장을 하여 줌이 위 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주거용’의 의미는 실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며 주씨가 1996년경 식당을 폐업한 이후로는 가옥을 주거용으로만 계속하여 사용해 온 이상 위 가옥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청구인 역시 이주대책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재결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주윤환 씨의 재결은 향후에도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될 우려가 있는 이주대상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익사업에 주거용 가옥이 편입될 경우 주거환경 보장차원에서 통상 이주자택지 공급, 주택특별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면 이주대상자들이 새로운 곳에서 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파워블로거 커넥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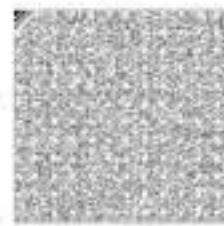
최근 한 포털사이트의 파워블로거가 채소와 과일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제거해준다는 L사의 살균 세척기 공동구매를 주도했다. 모두 3000여대, 대당 36만원에 판매됐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한 오존이 나온다며 리콜 조치를 하라고 밝혔다. 그뿐 아니다. 해당 파워블로거는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1대당 7만 원씩, 모두 2억 1000여 만원을 업체로부터 받기로 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걸까.

파워블로거, 기업과 손잡다

파워블로거 현 모씨(47·여·ID 베비로즈)가 수 억 원을 돈을 받기로 하고 문제 있는 제품의 공동 구매를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현 씨는 블로그에 올린 글을 모두 지운 채 사과글만 띠워놓았고, 포털사이트에는 현 씨처럼 공동구

매를 많이 추진했던 일부 파워블로거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블로거들의 자율적인 활동은 보장하되 블로거들의 영리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번에는 정부가



“파워블로거와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블로거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블로거 파워의 근간인 ‘신뢰성’이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나섰다. 국세청은 현 씨를 비롯해 사업자 등록 없이 전자상거래 행위를 한 파워블로거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한 세원(稅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상업용 카페 홈페이지에 사업용 계좌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추천을 하는 경우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건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다.

막강한 파워블로거의 영향력

사실 파워블로거들이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제품에 대한 평가를 올리거나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현 씨의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파워블로거가 받는 구체적인 금액이 알려진데다 제품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점 때문이다. 한 블로거는 이 사건에 대해 “현 씨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블로거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고백’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파워블로거는 아니지만 기업으로부터 공동구매와 홍보 제안을 정말 많이 받는다. 제품의 종류도 식품과 신약(新藥) 등으로 상상을 초월한다.”

파워블로거가 이렇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믿을 수 있어 보이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구입해야 하는 수많은 제품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 블로거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처럼 같은 처지에 있는 파워블로거는 친근하기까지 하다. 신뢰감이 수직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파워블로거가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한 30대 여성은 “제품을 살 때 살림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진 파워블로거의 추천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이 바빠 전업주부처럼 제품을 꼼꼼히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를 많이 챙겨줄 수가 없어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만큼 아이가 먹고 쓰는 제품은 품질이 검증된 것으로 사 주고 싶다”며 “파워블로거들이 추천한 제품은 좋은 제품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블로거에게 ‘파워’를 부여한 것은 결국 ‘소비자’

파워블로거와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블로거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블로거 파워의 근간인 ‘신뢰성’이 사라지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블로거라면 자신들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개하고 수익에 따른 세금도 내는 것이 옳다. 물론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그대로 글을 올리고 정말 ‘제품이 좋아서’ 공동구매를 추진한다면 그의 파워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현 씨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평가하며 양심 고백글을 올린 파워블로그는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업체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기업으로부터 받은 소액의 현금을 기부했다고 밝히며 기부영수증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구매는 쇼핑몰, 마트에서 하라. 제품 후기, 상품평, 블로그와 카페의 리뷰에 혼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블로거에게 얼마만큼의 ‘파워’를 부여할지 여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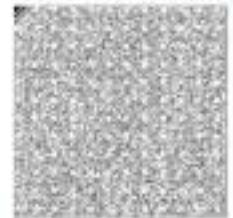
글 이소영 · 사진 김민정

마음을 활짝 열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 구제역 살처분 농가 '축산 보상' 스토리

고즈넉하기가 어머니 품속 같기로 유명한 도시, '안동'이 요즘 경북도청 이전 사업으로 예기치 못한 소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각종 보상 절차가 그 원인. 다행히 구제역 살처분 농가에 대한 '축산 영업 보상'은 지난 6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이 되었다. 이에 해당 농민들은 토로한다. "우리는 그저 이해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속을음 삼켜야 했던 50여일

“바로 여기에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소가 열다섯 마리나 됐었는데…….”

텅 빈 축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김명환 주민대표가 어렵게 마른 침을 삼킨다. 올해 초, 전국을 뒤흔들었던 구제역 바이러스로 인해 삶의 베풀목이나 다름없던 가축들을 모조리 살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니, 그 심정이 지금이라고 어찌 먹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축산 농가들의 아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현재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경북도청이 이곳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로 이전 확정되면서 농민들은 또 한 번 말할 수 없는 소외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말도 마세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멀쩡한 소들을 위험 방지 차원에서 한꺼번에 살처분시킨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기준 마릿수에 미달된다고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게 당최 말이 됩니까!”

김명환 주민대표의 목소리에서 채 식지 못한 울분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다른 주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 짐짓 담담한 표정으로 오래전에 말라버렸을 여물용 지푸라기만 만지작거릴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하나 축산 농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 벌어진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논지는 다음과 같았다.

도청 이전 사업 과정에서 농민들이 축산 영업 보상을 받으려거든 가구당 최소 5마리의 가축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고시일 이전부터 축산업을 해오다가 도청 이전 사업으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여야 한다고. 그런데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의 축산 농가 36곳은 도청 이전 사업이 아닌, 구제역 파동 탓에 축산업을 중단한 실정이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구제역 살처분에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관련 농가들의 축산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경상북도 또한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중 보상으로 여겨진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었다.

그렇지만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의 축산 농가들에 대해 이 같은 원칙을 적용시키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적잖았다. 하필이면 감정 평가 바로 직전, 구제역이 발생하는 바람에 소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축들을 살처분한 까닭이었다. 농민들로서는 지극히 억울한 일 이 아닐 수 없었다.

든든한 지원군, 국민권익위원회

경상북도개발공사도 안타깝긴 마찬가지였다. 축산 농가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는 있지만, 상황을 아우를 수 있는 법체제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도시 사업단 보상과 최경환 팀장이 농민들의 권리를 찾아주기로 했다.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보자고 농민들을 설득했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최경환 팀장의 고백에 장인환 대책위원장도 “티격태격하다 정든 사이”라며 결코 가볍지 않은 농을 건넨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진석 조사관에 따르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한뜻 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기는 이례적”이라는데. 그래서였을까. 두 달여 만의 조정 끝에 축산 농가들에 대한 보상 협의안이 성사되었다.

“지난달 말일, 풍천면사무소에서였죠.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과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권익위원장의 주재로 조정 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들이 축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축산 보상은 가축 소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도청 이전 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명목의 영업 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 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단다. 그리하여 ‘도청 이전 사업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축산업을 계속할 의지가 충분하고, 축사 크기 등 기타 제반 사실을 종합해 살처분 전 이전 사업의 영업 보상에 해당하는 가



01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축산 농가의 모습. 현재 모든 일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02 주민들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노력해 왔다.

03 이진석 조사관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주민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발로 뛰었다.

04 이진석 조사관은 또한 안동시 축산 농가들이 보상 받을 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다.

05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관련 농가들의 축산 보상을 위한 해당 지역 감정 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06 경상북도개발공사, 그리고 농가 주민 모두 ‘안동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





축의 기준 마릿수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 및 소명된다면 농민들에게 축산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 냈다. 농민들의 통탄과 염원이 하늘에 닿아 비로소 빛으로 흘러려진 순간이었다.

이제부터 시작, 갈 길이 멀어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관련 농가들의 축산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경상북도 또한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심은 언제든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경환 팀장님을 비롯해 이진석 조사관의 배려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동이 명품도시로 발전하는 일, 우리하고 왜 바라지 않겠어요? 그 마음 부디 알아줬으면 합니다."

장인환 대책위원장의 소감에 가만히 고개를 주억거리는 주민들. 지 난하고 고단했을 조정 기간이 떠오르는 듯 슬그머니 눈시울들을 붉힌다. 법 논리와 현실 간의 크나큰 간극, 침침하고 싸늘한 그 기로 속에서 무던히도 고독했을 터. 그 속내를 모를 리 없는 최경환 팀장 역시 수긍의 제스처를 보인다.

"구제역 피해가 미처 수습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도청 이전에 따른 보상마저 안 된다고 하니 솔직히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섭섭한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진석 조사관의 격려에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주민들의 어깨를 살갑게 보듬어 안는 최경환 팀장. 덥다며 장난스럽게 몸서리를 치면서도 주민들은 하나같이 싫지 않은 기색이다. 장인환 위원장은 차가운 오미자차를 푸짐하게 내오더니, 김명환 주민대표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더 챙겨줄 것이 없나 내내 두리번거리기도 한다. 일일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정감이 피부로 느껴진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역사의 터전 '안동'은 주민들에게 생의 근간이자 운명과도 같은 존재이다. 때문에 안동을 떠나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은 무척이나 두렵고 아프다. 옮겨 앉힌 나무가 몸살을 앓는 이치와 똑같은 맥락이라리라. 하지만 주민들은 오늘도 시린 가슴을 다잡는다. 안동시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열렬히 소망하며.

이진석 조사관 미니 인터뷰



이번 민원 해결로 인하여 안동시 축산 농가들이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권익위에 대한 신뢰를 묵묵히 보여 주셨던 주민들께 존경과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도 긴장 늦추지 않고 부지런히 뛸게요. 그간의 고충, 이루 말할 수 없으셨겠지만 이제는 풀풀 털어버리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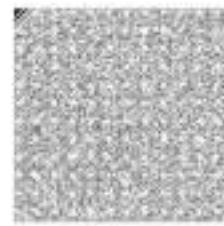


일러스트 유환석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울산 '홍명고' 이전 물꼬!!

- 권익위, 울산시·교육청과 교육여건 개선 위한 학교이전 합의





'홍명고' 이전 관련 현장 조정회의



중재안

- 울산교육청은 학교이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더불어 교과부로부터 이전 예산 확보 등 학교 이전을 적극 지원
-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학교 범위는 선정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매각
- 울산광역시는 개발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협력하기로 합의

2011년 2월 14일



글 박명환(前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 現 법무법인 비전 대표변호사)

우리 모두의 권익을 위하는 길



우리 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권익'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은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 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은 '나'의 권익만 앞세우느라 다른 이들의 권익을 미처 보지 못할 때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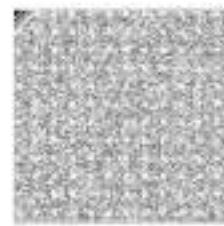
'노숙자'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노숙자의 권리은 왜 우리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외환위기 이후 '노숙자'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고, 요즘은 실업이 증가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청년노숙자, 여성노숙자에 이어 가족노숙자마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노숙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노숙자까지 합치면 최대 1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적지 않은 숫자다. 결코 그들만의 문제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들의 권익을 생각하는 것은 곧 우리 국민의 권리은 생각하는 일이 된다.

불과 몇 년 전에도 서울역 노숙자들의 잇따른 사망과 이에 따른 소동으로 노숙자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역이 8월부터는 밤에 역 안에서 자는 노숙자들을 쫓아내기로 했다고 한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서는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 대책 없이 그저 몰아내기만 하면 인권침해, 풍선효과, 물리적 충돌 등 여러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행패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치안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대

안을 마련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의 조치만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늘 양산되기 마련이다. 그들이 재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권익을 지켜줘야만, 우리 사회의 권리은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우선 노숙자 문제는 쉼터 등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쉼터는 자신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장소가 아니라 노숙자들이 거주하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숙자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쉼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의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돌볼 전문인력의 수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노숙자 정책은 쉼터의 좁은 공간에 사람을 마구 밀어넣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활보다는 거리노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과 개선이 더 시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노숙자들을 유형별로 분리해서 별도의 시설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자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단계별 개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땀질식 처방이 당장은 눈앞에서 문제를 제거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문제를 인식하면서 차근차근 제대로 풀어가는 길이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결국은 제일 빨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HAPPY ENJOYMENT

행복누림

우리 문화

성곽으로 그려낸 정조(正祖)의 꿈, 수원화성

문화지킴이

사람과 사람 그 안의 감동을 담는 여행사진작가, 신미식

법과 권익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으려면

건강한 삶

네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카메라에 비친 풍경

자연의 파노라마 펼쳐지는 영월 동강으로

포커스 온

딸의 영혼 위로하는 아버지의 정당방위 <엣지 오브 다크니스>

또 다른 세상

쓰레기 마을의 작은 영웅 <안녕, 베할라>

ACRC News

편집 후기

글 이성미 · 사진 김민정

성곽으로 그려낸 정조(正祖)의 꿈, 수원 ‘화성’

꽃이라 한다. 사람들은 수원화성을 ‘과학과 역사가 어우러진 건축의 백미’요, ‘성곽의 꽃’이라 한다. 그러나 수원화성을 꽃이라 부르는 진짜 이유는 조선 제22대 왕 정조의 꿈과 눈물을 먹고 피어난 건축물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01



개혁군주 정조, 꿈의 기틀을 세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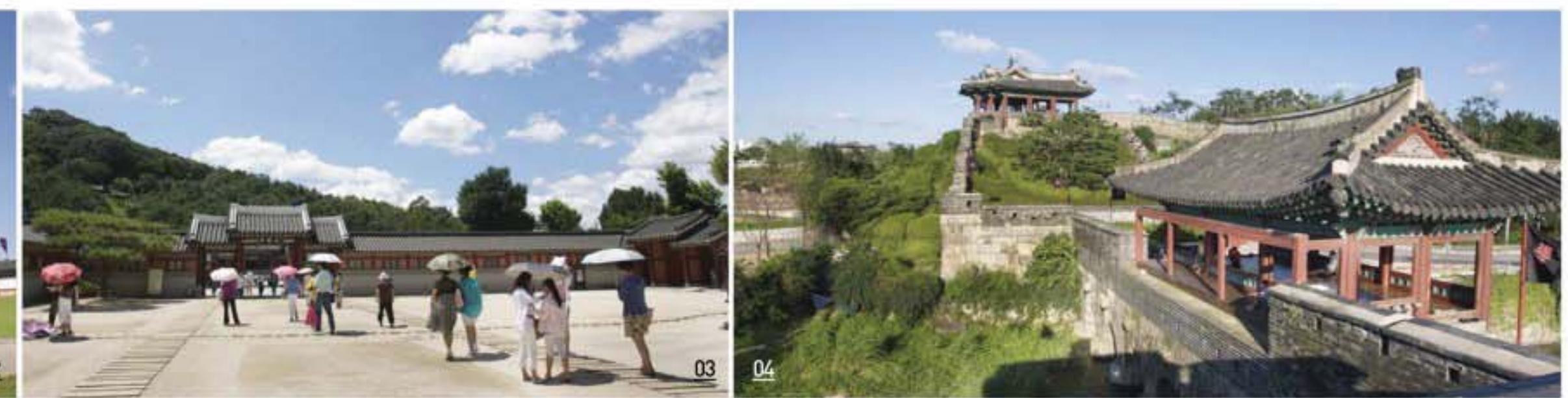
둘레 5.7km, 면적 188km², 40여 개의 건물이 모인 대형 건축물, 수원화성. 그러나 이 거대한 성곽이 완공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년 8개월이었다. 대형 장비가 움직이는 현대사회도 아닌 조선 시대에 어떻게 초고속 완공이 가능했을까?

당시 정조는 당쟁에 휘말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화산으로 옮기며 축성을 결심한다. 여기에 당파정치를 근절하고 강력한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소망과 수도 남쪽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당위성이 더해지며 수원화성 축성에 대한 정조의 의지는 더욱 커졌다.

1974년(정조 18년) 1월, 정조는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해 만든 「성화주략」을 지침으로 수원화성 축성을 시작한다. 당시 수원화성 건설은 정조의 명 아래에 정약용이 계획하고 채제공이 감독했는데, 정약용은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특수하게 고안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거중기는 40근의 힘으로 무려 625배나 되는 2만 5,000근의 돌을 들어 올려 성벽을 쌓는 데에 큰 역할을 하며, 백성이 부담해야 했던 공역 기간을 단축시켰다. 수원화성을 조선 실학의 실습장이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조 역시 축성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건설 과정을 손수 점검하고 결정하며, 조선 문화의 부흥을 이끌었다.



05



- 01 성곽 주변을 감시하고, 적의 공격 시 방어시설로 이용되는 동북공심돈
02 수원화성의 동문인 창룡문은 돌로 쌓은 흥예문 위에 단층 문루를 세웠다.
03 화성행궁 좌익문은 '곁에서 듭는다'는 이름 그대로 행궁을 지키고 있다.
04 수원천의 범람을 막아주는 북쪽 수문 화홍문(앞)과 화성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꼽히는 방화수류정(뒤)
05 화성의 서쪽문인 화서문은 다른 성곽 건축에서는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06

07

기록의 힘으로 지운 역사의 상흔

정조의 꿈이 성벽이 되어 수도 남쪽을 지키던 수원화성. 그러나 수원화성도 역사의 소용돌이를 피해 가지는 못했다. 본래 수원화성 축성 당시에는 화성행궁, 중포사, 내포사, 사직단 등 많은 부속시설물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심하게 훼손된다. 특히 장안문은 윗부분인 문루가 반 이상 날아가고, 성벽 위의 건축물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수원화성은 1975년 시작된 복원 공사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훌륭히 복원되었는지 전문가가 아니면 복제 사실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어떻게 완벽한 복원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선조들의 정교한 기록 덕분이다. 복원공사의 기초가 된 시공기록서 「화성성역의궤」에는 공사의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행과정, 각 시설물의 위치와 모습까지 낱낱이 적혀 있다. 또한, 어느 시설물이든 건축 자재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세세히 적고, 표현이 어려운 경우는 그림을 그려놓았다. 일을 담당한 사람이 어느 고장 사람이며,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의 품삯을 받았는지도 빼놓지 않았다. 이러한 선조들의 치밀한 시공기록 덕분에 수원화성은 역사의 상흔을 지우고 완벽히 복원될 수 있었다.

과학적인, 그러나 아름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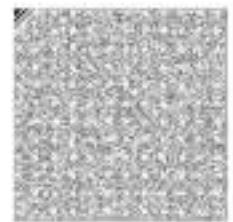
수원화성은 팔달문, 장안문, 화서문, 창룡문의 사대문과 40여 개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사방팔방 길이 열린다'라는 뜻의 팔달문은 조선 후기 문루 건축을 대표할 만큼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가까이 접근하는 적군을 공격하기 위해 성곽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는 '치성' 역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공심돈, 루(樓), 대(臺) 등 전쟁에 대비한 특수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화성행궁이 수려한 듯 단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화성행궁은 정조가 능원(陵園)에 참배할 때 머물던 임시 쳐소이다. 당시 수원부



08

09



10

- 06 화성행궁 후원에 자리한 미로한정. '장래 늙어서 한가하게 쉴 정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07 북문 장안문에 있는 장안공원에서는 휴식을 즐기는 이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08 등장대(연무대)에서 국궁 활쏘기체험을 즐기는 학생들
09 산 위의 휘어 굽은 자리를 밟고 올라 있는 서복각루
10 야트막한 담이 감싸고 있는 화령전
11 화령전은 소박하고 정갈한 우리 조상들의 품성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12 화성행궁 신풍루에서는 정조대왕능행차, 장용영수위의식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된다.

관아와 행궁으로 사용되었으나 1794년 수원화성을 축성하며 완성했다. 정조는 현릉 원 천봉 이후 11년간 12번에 걸친 능행(陵幸)을 거행했는데 이때마다 화성행궁에 머물렀다. 또한, 행궁의 정문 이름을 신풍루(新豐樓) 즉 새로운 고향이라 부르며 각별한 수원 사랑을 드러냈다.

화성행궁 옆으로는 화령전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화령전은 정조가 죽고 그의 아들 순조가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기 위해 지었다. 순조는 이곳에서 노인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기도 하고, 정조의 탄신일과 납향일에 제향을 지내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아버지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은 순조의 심성이 건물 곳곳에 따스하게 묻어 있는 듯하다.

돌담 따라 피어난 조선 문화의 꽃

군사적 기능은 물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동양 성곽의 백미”라 불리는 수원화성. 주변국은 물론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원화성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조선의 문화가 얼마나 창조적이며 과학적이었는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예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조선 문화 부흥의 한가운데에 있는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조의 지극한 효심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성곽이 현재는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선조들의 힘으로 완성되고 지켜낸 수원화성은 이제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할 ‘꽃’이다.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이 그윽한 향기로 남아 있는 수원화성. 이번 주말 역사의 향기에 취해보는 건 어떨까.



11



12

문화 지킴이

글 최대규 사진 정병국, 신상은

interview



사람과 사람 그 안의 감동을 담는 여행사진작가, 신미식

profile

전시회

2009년 바오밥나무

2009년 ETHIOPIA 천국의 땅

2008년 마다가스카르 희망과 사랑

2007년 천사들의 땅 마다가스카르

2007년 페루

2007년 Human in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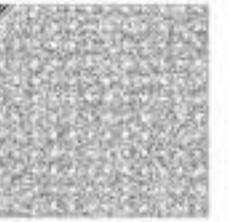
저서

지라니 합창단 희망을 노래하다(글레마, 2010년 11월)

사진에 미친놈, 신미식(비전과 리더십, 2010년 11월)

대한민국 국도1번 걷기여행(들, 2010년 8월)

사진은 감동이다(푸른솔, 2010년 4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행복한 사람

여기 한 사내가 있다. 낯설고 외로운 길을 가는 사내다.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는 곳만을 거닐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쓴다. 그는 그런 곳들에 ‘감동’이 있다고 말한다. 그만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다. 바로 스스로를 여행자라 칭하는 신미식 사진작가의 이야기다. 그는 서른 즈음에 불현 듯, 자기 소유의 카메라를 장만하고는 여행을 시작했다.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여러 잡지사에서 종잇밥을 먹으며 살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름 순조롭고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달리 말하면 컴퓨터와 마우스만 바라보는 삶이었다.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어제와 오늘 내일이 한결같은 그런 삶의 끝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그가 여행을 시작하고 사진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다. 하지만 그는 좀 더 분명히 말한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한 자리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게 사진과 여행이었죠.”



누군가는 그의 삶을 부러워할지 모른다. 혹은 비난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사진을 들여다보면 그건 좁은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황량한 그곳, 구슬처럼 커다랗고 맑은 눈으로 애처롭게 바라보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 그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신미식 씨는 웃음을 담아내고 행복을 그려낸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하는 여행과 사진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언뜻 굉장히 작가주의적이고 무거운 작품뿐일 것만 같다. 그러나 그건 편견이다. 그의 사진과 여행기는 그보다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페루의 골목길에서 국민 자동차였던 티코를 마주하는 일이나, 위험하기 그지없는 분쟁지역에서 보디가드의 호위를 받는 일은 분명 멋진 경험이다. 그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마주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내가 가진 것,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게 잘 안되잖아요. 근데 사진에서 그리고 여행길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되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친구가 되고, 시인이 되고 싶으면 시인이 된다. 때론 선생님처럼 때론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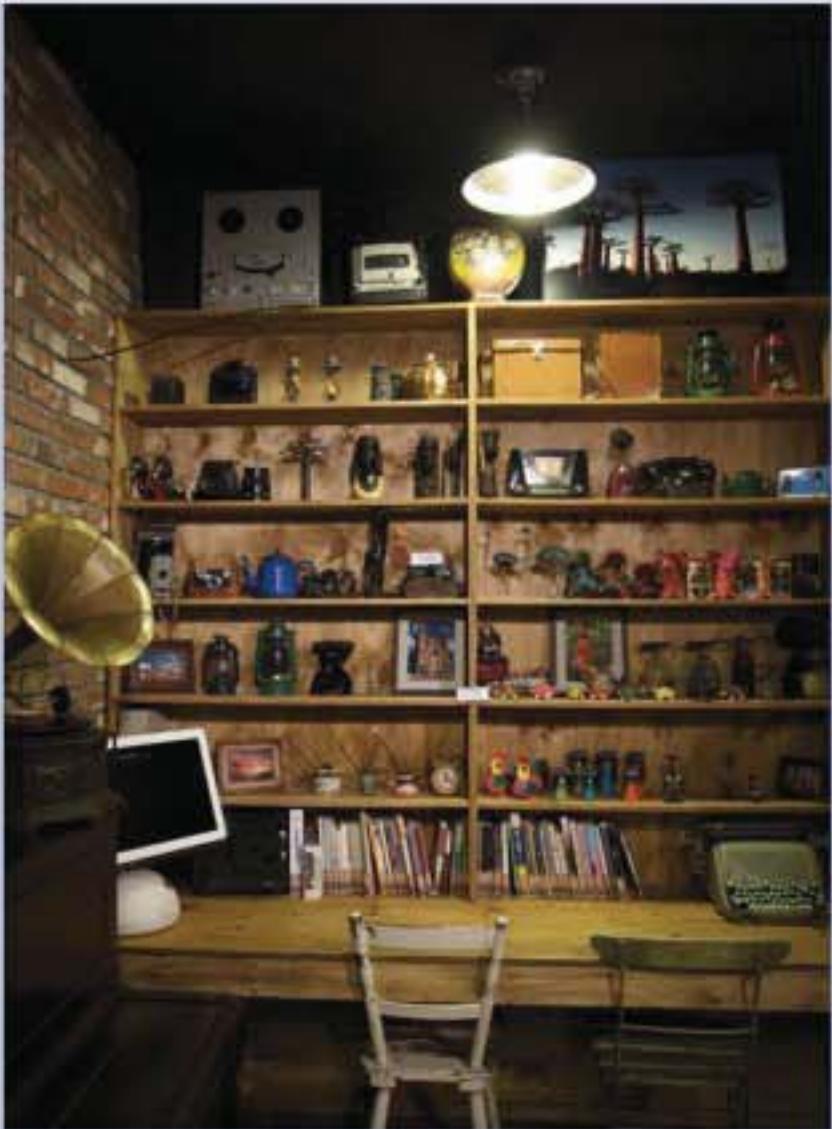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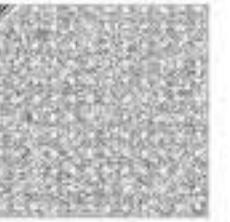
이처럼 그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린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다.

이렇게 마음껏, 행복한 사진을 찍는 그가 얻는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돈, 명예, 지위 기타 등등… 하지만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보면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일련의 여행과 사진.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 어린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프로젝션과 거대한 텔레비전을 한국에서부터 나르는 신미식씨, 박지성 선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를 입고 있는 현지인을 보고 친구가 된 신미식씨.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멋진 사람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추억이 쌓일수록 사람은 행복해진다

여행자로 그리고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그에게 많은 재산이 남아있다. 그건 돈이 아니다. 돈과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 바로 추억이다. 빛바랜 사진 한 장, 낯선 이국에서 쓴 글 한 줄, 그곳에서 마셨던 커피 한 잔이 바로 그의 재산이다.
그는 그것들을 모아 서울에 카페를 냈다. 그가 떠났던 여행지의 이름을 딴 '마다가스카르'. 사진과 책과 차 한 잔 그리고 사람이 있어 좋은 그곳은 신미식 씨가 가장 아끼는 곳이기도 하다. 때론 마음이 맞는 친구들의 공연장으로 빌려주기도 하는 '마다가스카르'에서 그는 늘 새로운 여행길에 올라 카메라에 풍경을 담을 준비를 한다.
"지난번에는 우리 길을 한번 담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친구와 둘이서 1번 국도 걷기를 했죠. 제 고향 송탄을 지나, 발길이 멈추는 곳까지 갔습니다."

“내가 찾은 도시에서 난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즐긴다”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람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아둔다.”

“외로워할 줄 알아서 다행이다. 그 외로움을 달랠 줄 알아서”

– 여행사진작가 신미식 블로그 ‘여행과 사진에 미치다’ 中

친구와 1번 국도를 걸었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도1번 걷기여행>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담는 것을 즐긴다고 말하는 신미식씨. 길을 가다 마주치는 것만으로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달랠 줄 알아서 참 다행이라고 수줍게 이야기하고, 돌아와 사진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이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진작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신미식 씨는 항상 말한다.

“모든 이유들은 결국 자기 스스로 만든 도피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가장 어려운 때에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평계를 대기보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또 다시 먼 곳으로 시선을 향한다. 벌써 그곳에 도착하기라도 한 것 마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으려면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빠는 이유는 산란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피와 같이 소중한 돈을 빨아먹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특히 사기범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일 년에 20만 건이 넘는 사기사건이 수사기관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개인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범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벌하도록 해야 한다.

전화는 오래된 범죄 수단

예전부터 전화는 매우 편리한 의사소통 수단이지만, 각종 범죄에 많이 악용되었다. 예컨대 공범끼리 짜고 피해자를 속이는 것이다. 사기범이 피해자 앞에서 다른 공범에게 전화를 걸어 고위공직자인 것처럼 통화를 한다. 엄청난 배경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구속시킬 것처럼 공갈을 치기도 한다.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10여 년 전부터는 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했다. 이미 외국에서 많이 유행하던 수법인데 한국에 뒤늦게 상륙하여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른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불리는 사기범죄이다. 영어로 Phishing이라는 단어는 Fishing(낚시)과 Private data(개인정보)라는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보이스 피싱이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보이스 피싱은 진화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 초기에는 잘못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이야기하도록 한 다음 예금액을 인출해가는 수법이 많았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됨으로써 피해를 본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런 피해를 당하면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계좌에서 몇 백만 원이 인출되고 경찰에 신고해봤자 범인은 쉽게 잡히지 않고, 또 잡았다고 해도 범인은 징역만 살지 손해배상을 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다.

언론을 통해 이런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되었지만,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가 똑같은 사기를 당하곤 했다. 심지어는 고위 공직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빨리 돈을 붙이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거액을 송금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자녀는 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보이스 피싱 수법은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관공서 등을 사칭해서 수



“보이스 피싱은 첨단 과학문명을 범죄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 범죄다. 이런 범죄의 피해는 광범위하며 대단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사기판에 출석하라거나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거나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해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입수하여 악용하고, 송금을 요구해서 편취를 하는 식이다.

피해 최소화, 안전장치 마련해야

보이스 피싱은 첨단 과학문명을 범죄에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범죄다. 이런 범죄의 피해는 광범위하며 대단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커다란 사회적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범죄조직을 소탕할 수 있도록 수사기법을 과학화하고 신속하게 범인검거에 진력해야 한다.

그런데 검거가 쉽지는 않다. 보이스 피싱수법이란 매우 간단하다.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걸려들면 돈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다. 범죄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화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다. 보이스 피싱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 있다. 누구나 한 순간 ‘사기’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는 점이다. 발신지를 추적해도 국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직접 피해가 없다면 잡기도 어렵다. 물론 예방법도 딱히 없다. 그저 조심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가는 데 속수무책인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런 범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예방책을 세워주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①전화로 자신의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를 요구하면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②현금지급기로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하거나 등록금을 납부하게 해준다는 전화에도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한다. ③각종 인터넷 매체에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한 사기전화를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 없

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

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

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글 문요한(정신경영아카데미 대표, 정신과 전문의)

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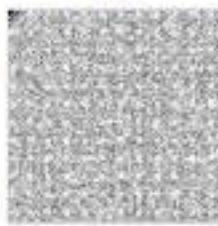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마 대사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와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를 흔히 떠올린다. 왜 사람들은 이 대사들을 오래 동안 기억하고 있을까? 그 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의 존재를 우리는 바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갈수록 관계와 공동체는 약해지고 우리는 이웃조차 믿지 못한 채 점점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공감부재'와 '과잉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원래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존재라고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인간

아이들을 보자. 아이들은 흉내쟁이이다. 출생 후부터 사람들의 인상과 표정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상대가 입을 벌리거나 혀를 내밀거나 웃으면 아이도 따라하려고 애쓴다. 어른이 되면 다를까? 그렇지 않다. 누군가 하품하거나 노래를 흥얼거리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 성장과 학습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기본방식이 바로 모방인 셈이다. 행동만이 아니다. 신생아실 아이들은 한 아이가 울면 연달아 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게 되면 아무리 시끄럽게 우는 아이들이라도 울지 않는다. 즉, 자신의 울음에는 울지 않고 다른 아이의 울음에만 반응하는 것이다. 이를 '신생아성 반응울음'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인의 고통이나 불안을 같이 느끼는 '공감' 기능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신



경과학자인 탄야 징거(Tanja Singer)의 실험을 보면 이를 더 잘 알 수 있다. 그녀는 수술용 메스로 손가락 끝을 찔러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동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뇌의 반응을 촬영하였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도 손가락이 직접 찔린 사람의 뇌에서처럼 고통을 느끼는



“
공감은 본능이다. 우리는 원래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도록 설계된 공동체적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혹은 우리 사회가 공감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뇌의 대상회 영역과 연관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타인의 고통을 보고 마치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신경세포가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거울

앞의 실험을 보면 우리의 뇌에 타인의 행동, 표정, 감정, 고통을 모방하고 공유하는 신경생리학적 장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1990년대 초기에 이탈리아 신경생리학자인 비토리오 갈레세 박사와 동료들은 원숭이의 뇌를 연구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갈레세 박사는 별생각 없이 음식물을 잡으려고 손을 움직였는데 원숭이 뇌 안에 삽입된 전극과 연결된 컴퓨터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원숭이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단지 손을 움직인 박사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말이다. 연구팀들은 의아한 나머지 신호음을 분석해보았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던 원숭이의 뇌에서 물건을 집을 때의 운동영역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자들은 이렇게 다른 개체의 행동을 볼 때 똑같이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를 ‘거울뉴런’이라고 명명하였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거울뉴런체계가 가장 잘 발달되어 행동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 고통에 대해서도 활성화되는 거울뉴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이 왜 다른 동물보다 더 높은 사회성과 이타성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공감은 인간의 본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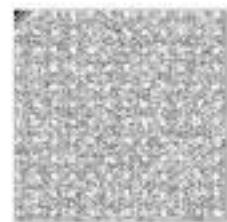
이렇듯 우리는 모방하고 공감하도록 사전 설계되어 세상에 나온다. 물론 자폐증이나 사이코패스처럼 거울뉴런에 이상이 생긴 채로 세상에 태어나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둔감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상 없이 태어났더라도 애착손상을 입게 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면 거울뉴런의 발달과 기능에 이상이 생겨 타인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협력과 연대가 사라지고 경쟁과 승부만 남은 사회에서 거울뉴런은 발달할 수 없다.

공감은 본능이다. 우리는 원래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도록 설계된 공동체적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혹은 우리 사회가 공감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다시 공감본능을 회복해야 한다. 공감이 사라지면 사회는 지탱될 수 없다. 그래서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과정에 공감교육을 도입하여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돋고 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의 60%가량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하니 공감이야말로 너와 나를 연결시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공기 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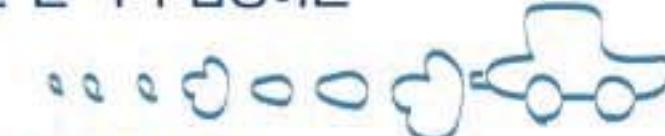


산자락을 굽이굽이 헤집고 흘러내리며 마치 뱀 한마리가 기어가는 듯한 사행천(巴行川)을 이루고 있는 동강. 용트림하듯 굽이치는 강줄기 따라 펼쳐지는 시원스런 풍경과 기암괴석들은 동강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아름다운 풍광 못지않게 유명한 동강의 또 다른 이름은 국내 최대 래프팅 장소라는 것. 또한,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원한 여름, 멋진 여름을 꿈꾼다면 자연의 파노라마 펼쳐지는 영월 동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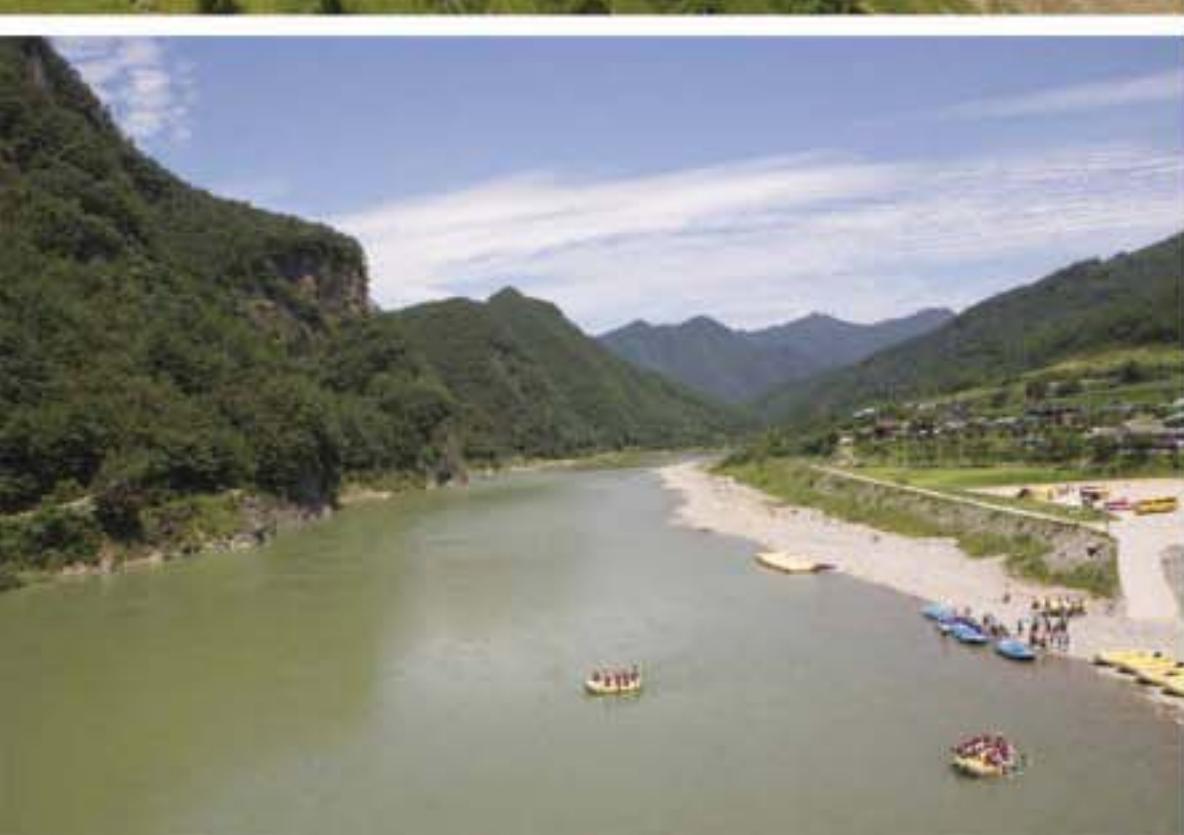
물길 따라 감상하는



강원도의 비경

강원도 남쪽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영월. 이곳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탄광이 유명했던 지역이다. 당시 영월은 제법 호황을 누리던 큰 도시였다. 하지만 석탄 산업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겨우 4만 명을 유지하는 정도다.

그런 영월이 최근 변했다. 아니, 실은 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오래전부터 '물길 따라 감상하는 강원도의 비경'으로 영월 지역은 인기였다. 그게 전파를 탔다. 모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영월에서의 1박 2일 특집을 꾸미고 곳곳을 소개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다시 이 지역으로 모아졌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즐기는 것이 '래프팅'. 적절한 물살과 강 주변의 아름다운 볼거리로 인해 여름철 영월을 찾은 이들이 꼭 들리는 필수코스가 되었다. 영월의 숨겨진 잠재력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박물관 고을'을 조성해 다양한 관광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단종의 애사가 서린 '장릉(조선왕릉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더 모으고 있다.





01

01 급류를 가르는 래프팅은 동강의 또 다른 즐거움이다.

02 바위에 올라 기도를 하면 아이를 갖게 된다는 전설이 깃든 두꺼비 바위.

03 청령포에 유배간 단종이 생활했던 단종어가.

04 조선 제 6대 왕 단종의 무덤인 장릉.

05 동양화를 보는 듯한 선돌, 일몰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06 청령포의 소나무는 단종어가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



더위 잊게 하는 동강

백두대간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산골짜기를 빙 돌아 큰 강을 이룬다. 세가 아름다운 절벽과 풍성한 숲, 힘찬 물길만으로도 보는 이를 설레게 하는 강, 동강이다. 한 방송에서 연예인들이 단체로 ‘와~’하고 감탄사를 내뱉은 바로 그 강이다.

동강 주변은 아직 일부 구간이 비포장 길이라 접근이 쉽지는 않다. 또한, 자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곳도 있다. 덕분에 아직 곳곳이 사람들의 손때를 덜 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살아있다. 어딜 보나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지만 동강 최고의 비경은 바로 동강 상류 거운리에 있는 어라연이다. 말발굽처럼 ‘U’자 형태로 크게 휘도는 물줄기 한 가운데 신선이 놀았다는 삼선암(三仙岩)이라는 바위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소 3개가 형성돼 있다. ‘물고기가 비단같이 떠오르는 곳’이란 이름처럼 물이 맑고 투명하며 기암과 바위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거운리 나루터에서 강을 따라 걸으면 어라연 양쪽 기슭의 천 길 낭떠러지 사이의 늙은 소나무들이 운치를 더해준다.

절경만큼이나 어라연은 ‘동강 래프팅’의 명소기도 하다. 때문에 여름이면 많은 젊은이들은 동강에 몸을 맡기고 아찔한 급류타기를 즐기기도 한다. 아직 때 묻지 않았기에 동강은 젊은이들의 ‘열정’과 함께 굽이쳐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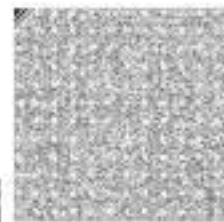
02



03



04



05

06

한국의 그랜드 캐니언,



어라연

동강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어라연에는 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어린 나이에 죽은 단종의 혼령이 영월에서 경치가 가장 뛰어난 이곳의 경치를 보고 여기서 신선처럼 살고자 하였다. 이때 물고기들이 줄을 지어 반겼으며 그 일대가 마치 고기비늘로 덮인 연못과 같았다고 해서 ‘어라연’이란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약 1km에 걸친 협곡을 따라 흐르는 동강의 중앙부에 3,000여 평의 바위섬이 위치한 어라연은 돌로 된 바위 위의 소나무와 물에 잠긴 너럭바위에서 반사되는 햇살, 병풍 같은 절벽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한다. 가끔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그랜드 캐년으로 중국의 계림에 버금가는 명승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어라연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잣봉(537m)이다. 거운리 봉래초등학교 거운분교에서 출발해 마차마을을 거쳐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잘 정비돼 있다. 능선을 탈 때까지 완만한 오르막이 지속되지만 쉬엄쉬엄 오르면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다. 정상 인근에 두 개의 전망대가 있는데 두 번째 전망대에서 어라연이 더 잘 보인다. 내려올 때는 정상에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도 되지만 정상에서 어라연을 거쳐 만지마을 돌아 거운리로 나오는 길이 동강을 좀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

단종의 슬픔이 물어나는



청령포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고 유배됐던 곳, 바로 청령포다. ‘육지 속 섬’이라고 불리는 청령포는 삼면이 물로 둘러싸이고 서쪽은 험준한 암벽이 솟아있어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었다. 어린 단종은 이 적막한 곳에서 외부와 두절된 유배생활을 했다. 슬픈 역사가 담겨있어서인지 청령포의 아름다움은 더욱 눈이 부시다.

청령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시간. 청령포의 아름다운 솔숲 안에는 단종이 머물렀던 단종어가와 관음송, 망향탑, 노산대 등의 단종유적지가 있다. 하늘을 찌를 기세로 서있는 관음송은 수령이 약 600년, 높이가 30m, 둘레 5m로서 청령포의 소나무 중 가장 우람한 나무다. 단종의 유배생활을 지켜보며(觀) 단종이 오열하는 소리를 들었다(昔) 하여 관음송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영월 동강 여행정보



관광문의

영월 문화관광과 1577-0545

<http://ywtour.com>

영월 동강 가는 방법

1. 자동차

1) 영동고속도로 남원주IC→중앙고속도로 제천 방향→신림IC→88번 지방도로, 횡문→주천→소나기재→장릉을 지나면 영월읍 (서울에서 약 250km)

2) 영월읍→거운교→어라연

장릉삼거리→영월시내→동강1,2교→영월역을 지나 태백방면으로 500m 사거리→거운교 (25분 소요)→거운초등학교→우회전→만지동→어라연까지 남은 1km는 돌밭과 모랫길 (차량은 전면 통제하므로 다리 건너기 전에 주차).

2. 기차

1) 청량리역→영월역(무궁화호)

(1일 총 7회, 2시간 50분 소요
/ 1만 1,000원→주중·어른 기준)

2) 영월버스터미널→동강

(1일 총 5회, 문산리행 버스)
문의 : 영월버스터미널 033-374-2451

3. 버스

1) 센트럴시티터미널(지하철 3·7·9호선 고속버스터미널)→영월버스터미널

(1일 총 4회, 2시간 30분 소요
/ 1만 1,800원→어른 기준)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600,

승차권 예약 1544-5551

동서울터미널(지하철 2호선 강변역)

→영월버스터미널

(1일 총 15회, 2시간 소요
/ 1만 4,400원→어른 기준)

문의 : 동서울터미널 1688-5975

2) 영월에서부터는 기차와 동일.

멜깁슨이 돌아왔다! 부성 짠한 복수극 〈엣지 오브 다크니스〉

딸의 영혼 위로하는 아버지의 정당방위

〈엣지 오브 다크니스〉의 포스터는 단순하다. “딸의 죽음, 거대한 음모, 그의 분노가 폭발한다”라는 카피문구 뒤로 허리춤에 경찰 배지를 단 멜깁슨이 서 있다. 이글거리는 눈으로 누군가를 향해 총구를 겨눈 그, 마치 장쾌한 액션영화의 한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그림이다. 하지만 이 영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딸의 죽음에는 거대한 음모와 배후가 숨어있었다. 그것과 맞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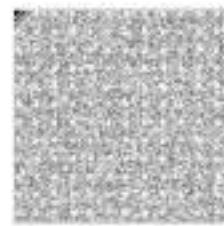
〈엣지 오브 다크니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멜깁슨의 활약상에 의존하는 장르영화다. 하지만 그 장르는 액션보다는 범죄·스릴러 쪽이다. 복수가 전개되며 간간이 등장하는 액션신은 “돌아온 노병”을 추억하는 정도로만 그려진다. 영화는 친절하고 흥미진진하며 복수의 과정은 지극히 단순하다. 대신 영화는 그의 딸을 죽인 배후에 주목한다.

딸을 잃은 후, 딸의 삶과 마주하다

부녀가 오랜만에 재회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앉아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기도 전에 그는 딸(엠마 크레이븐: 보자나 노바코빅)을 잃고 만다. 느닷없는 괴한의 총격. 저격수는 “크레이븐!”이라고 거칠게 외치며 딸의 목숨을 앗아갔다. 딸을 잃은 아버지(토마스 크레이븐: 멜깁슨)는 빈 집에 망연히 앉아있다. 딸의 환영은 보이지만 딸

의 존재는 더는 없다. 두 사람이 오붓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더라면 어땠을까… 둘은 다정히 눈을 맞추었겠지만 곧 어색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다. 서로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게 지내며 세세한 안부를 나누지 못하고 살아온 부녀를 누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 딸을 잃고 나서야 아버지는 딸의 삶과 마주한다. 그리고 딸의 삶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간다.

연륜 깊은 형사인 그는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악한이 자기 대신 딸을 쏘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의 신상과 주변을 수색해나가며, 총격의 표적은 애초에 엠마였으며 그녀가 누군가로부터 쫓기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딸의 과거 속에서 총을 쏘아야만 하는 아버지의 운명. 딸의 죽음을 가운데에 두고 그들의 고통이 엇갈렸기에 이 복수극은 통쾌하기에 앞서 슬프고 애틋하다.



아버지로서, 진실을 목도한 자로서

엠마가 근무하던 ‘노스무어 사’는 친환경에너지사업체로서 지역사회의 복지와 성장에 이바지하는 윤리적 기업체다. 포장은 그랬다. 그런데 내막은 달랐다. 국가와 비밀계약을 맺고 있는 ‘노스무어 사’는 이른바 군산복합체였다. 사내에서 은밀히 핵무기 제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엠마는 환경단체와 연합해 그 사실을 폭로하려 했고 그게 그녀를 죽음의 길로 몰아갔다. 엠마는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 평생 충직하게 일했던 평범한 경찰이었던 크레이븐. 누군가 그에게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물었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법과 질서와 하나뿐인 딸을 위해 산다”고. 그는 조직의 신념과 가장의 책임에 충실히 복무하는 일개 국민이었다. 그런데 그의 사랑스러운 딸은 법과 질서 위에 군림하는, 국민의 믿음을 야욕과 맞바꾸는 조직의 부정에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진실을 알게 된 크레이븐은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며 거침없는 복수를 감행한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은 슬플 때 하는 말이 아니다. 처절한 배신감을 느꼈을 때 하는 말이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뒷목을 죄어올 때, 내가 믿었던 가치가 아무 것도 아님을 알았을 때 스스로 독을 품고 하는 말이다. 정치가와 기업가, 군부와 국가가 그들 욕망의 이해관계에 따라 굴러가는 것을, 믿었던 동료가 그 권력에 복종해 자신을 배신하는 것을 그는 딸의 죽음을 통해 보았다. 따라서 이 복수극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입고 있던 경찰복을 스스로 벗어버리는 의식이기도 하다. 경찰로서는 하지 못할 일을 아버지로서, 진실을 목도한 자로서 거행하는 것이다.

여전히 진행중인 이슈, 인류를 위협하는 핵 공포

〈엣지 오브 다크니스〉는 동명의 원작 드라마가 있다. 마틴 캠벨 감독 자신

이 이미

25년 전에, 이

이야기를 6부작 드

라마로 연출한 바 있다. 드

라마 ‘엣지 오브 다크니스’가 그

당시 영국에서 핵 확산을 저지하는 분위기 를 크게 고조시켰다고 하니 자못 흥미롭다.

25년 전의 세계는, 냉전이 아직 가시지 않았었고 소련의 핵무기 위협과 쿠바의 미사일 위기 등의 공포에 시달리던 때였다.

국내에서 지난해 6월 개봉한 〈엣지 오브 다크니스〉. 지난 1년 사이 인류는 ‘3.11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고 이 참사가 야기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전 반대와 핵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거세지고 있다. 〈엣지 오브 다크니스〉는 어찌 보면 그리 새로

울 것 없는 이야기이지만, 압축된 미드를 보는 듯한 이 영

화 안에는 25년 전과 현재에 걸쳐 유효한 핵 개발 이슈

가 진한 부성(父性) 아래에 맛깔스럽게 버무려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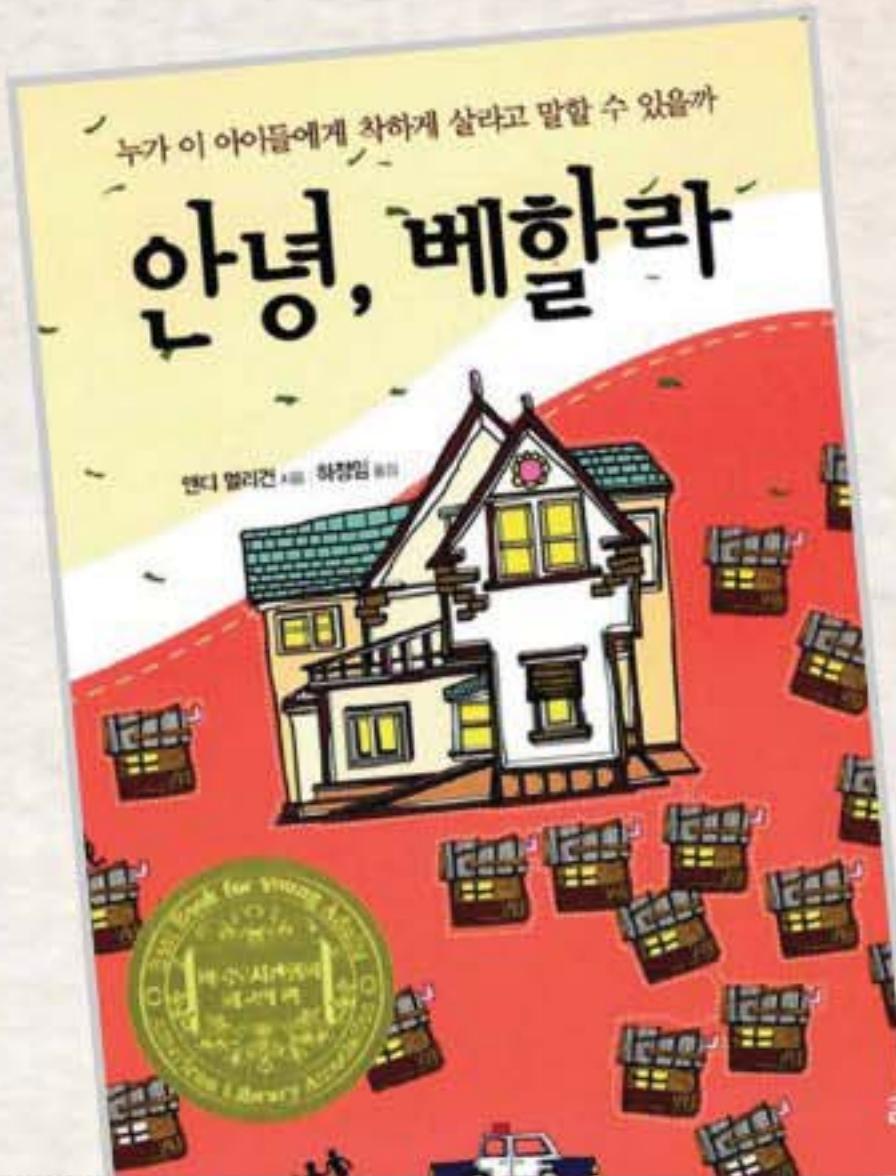
다. 과연 인류가 만든 희대의 발명품은 인류의 삶과 환경을 어떻게 위협하게 될까? 크레이븐이 딸의 과

거 속에서 싸웠듯, 우리는 지금

지구의 미래 속에서 싸우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쓰레기 마을의 작은 영웅

〈안녕, 베할라〉 / 앤디 멀리건 지음 / 하정임 옮김 / 다른 / 2011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도시에는 언제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이런 생산물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소비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이면에는 함부로 버려지는 물건들, 그리고 소외된 빈곤층이 있다. 소설 〈안녕, 베할라〉는 부패, 빈곤, 과소비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을 스릴러 형식으로 경쾌하게 풀어낸다.

베할라, 안녕? 혹은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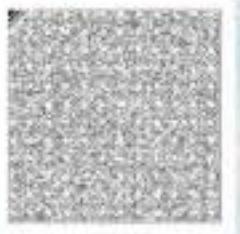
우리말 '안녕'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우리는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말한다. 처음 책을 접했을 때는 이 말이 만나서 반갑다는 의미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주인공 아이들이 쓰레기 마을 베할라를 떠나면서 견네는 작별 인사였다. 책 표지나 제목 때문에 뭔가 밝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예상했던 독자라면, 책 전반에 깔린 무거운 분위기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다. (원제목은 'TRASH'인데, 이 제목이 작품 분위기를 훨씬 잘 전달하는 것 같다) 책 속의 쓰레기 마을 베할라는 저자 앤디 멀리건이 필리핀의 마닐라에 거주하면서 방문했던 곳이며, 실제로 그곳의 아이들은 평생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 작가는 이 실제 마을을 무대로 허구의 이야기를 엮어낸다. 물론 그 허구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불편한 진실들이다.

보통 이런 종류의 성장 소설은 가난한 아이들의 삶을 묘사하고, 그들이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는 데 치중한다. 경제적인 어려움

은 아름답게 묘사되며, 대부분의 갈등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했다가 개인적 차원에서 극복되곤 한다. 하지만 〈안녕, 베할라〉는 가난을 아름답게 묘사하지 않는다. 작가는 쥐가 머릿속을 뛰어다니고, 쓰레기 냄새가 코끝에 맴돌 정도로 사실적인 현실을 그려낸다.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소설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주인공 라파엘을 비롯해 세 명의 아이들은 자신들을 가난하게 만든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맞서서 나름의 작은 투쟁을 벌인다. 이처럼 주제와 분위기는 무겁지만 소설의 구성과 진행과정은 매우 경쾌하다. 보물을 찾아 가는 여정을 신나게 읽다보면, 독자들은 어느 순간 현실의 어두운 단면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현금 600만 달러를 놓고 벌이는 추격전

이야기의 무대는 도시의 쓰레기하치장에 위치한 마을, 베할라다. "쓰레기 더미는 마치 히말라야산맥 같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없다."



이곳에서 베할라 사람들은 쓰레기더미를 뒤져서 생계를 이어간다. 라파엘, 가르도, 래트. 이 세 명의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다. 베할라 아이들은 맨발로 쓰레기 산을 오르며 온종일 뭔가 팔 수 있는 것을 찾는다. 플라스틱, 유리, 고무……. 찾아내는 것은 늘 똑같은 쓰레기 일 뿐. 하지만 어느 날 라파엘이 작은 가죽 가방을 발견하면서 세 아이들은 엄청난 일에 휘말리게 된다.

가방 속에 들어 있는 것은 1100페소의 현금, 호세 안젤리코라는 남자의 신분증, 호세의 딸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의 사진, 101이라는 번호 표가 달린 열쇠, 그리고 시내의 지도였다. 가방을 주운 다음날 베할라 마을에 경찰이 몰려든다. 경찰은 가방을 찾는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며 마을 사람들을 수색작업에 동원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경찰에게 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겠다고 결심한다. 경찰의 감시를 피해 하나씩 가방의 비밀을 파헤치는 아이들. 그들은 가방의 주인 호세 안젤리코가 이미 경찰 조사 중 사망했으며, 상원 의원 자판타가 분실한 현금 600만 달러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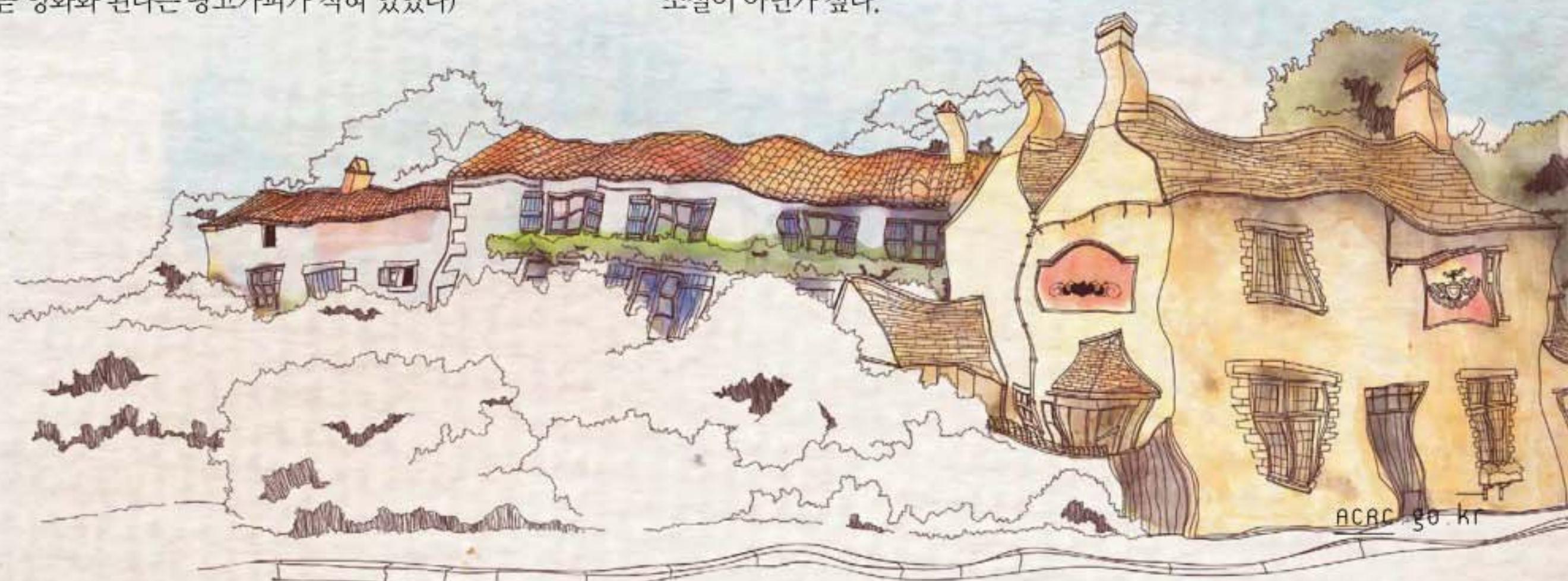
상원의원 자판타는 베할라 같은 마을에 써야 할 국제기금을 횡령한 부패 정치인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호세 안젤리코를 위해서, 그리고 자판타가 돈을 되찾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험에 뛰어든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조금씩 드러나고, 아이들은 호세가 죽기 전에 숨긴 600만 달러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된다. 이처럼 사건의 중심을 향해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구성, 그리고 경찰과 아이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마치 한 편의 할리우드 영화를 연상케 한다. (실제로 책 뒤페이지에는 이 소설이 곧 영화화 된다는 광고카피가 적혀 있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

이 소설은 형식이나 기법 면에서도 조금 색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우선 여러 명의 화자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눈에 띈다. 각 장마다 라파엘, 가르도, 래트, 줄리어드 신부, 올리비아 수녀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한다. 이런 이야기 서술 방식은 스릴러 형식의 구성과 맞물리면서 소설의 긴장감을 배가시킨다.

암호문이나 신문 기사 양식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다른 소설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방법이다. 특히 마지막에는 호세 안젤리코가 남긴 편지를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해결하는 한 편,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편지에서 호세 안젤리코는 자판타가 저지른 가장 나쁜 짓이 ‘부정부패를 온 나라로 전염시킨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작가의 메시지는 소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아이들은 호세가 남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곳곳에 가난과 폭력,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다. 이곳에서 경찰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부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존재일 뿐이다.

일반적인 청소년 문학에 비해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다. 아름다운 모습보다는 현실의 추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안녕, 베할라〉는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좋은 소설은 허구를 통해 현실의 단면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작품은 아이들을 위한 모험 소설인 동시에 현실을 보여주는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학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사실 〈안녕, 베할라〉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한 소설이 아닌가 싶다.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 배포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생활에서 실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 우수제도 28개를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다른 공공기관도 실정에 맞게 도입해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에 사례집에 수록된 제도들은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나 인력의 부담이 적으면서 파급 효과가 큰 제도들로서 권익위가 외부기관 전문가와 공공기관 행동강령책임관, 위원회 자체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급 기관이 행동강령 우수제도를 도입하는지의 여부와 운영성과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고, 올해 우수제도로 선정된 신규사례를 제출한 기관 대해서도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직자 행동강령 우수제도 사례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정책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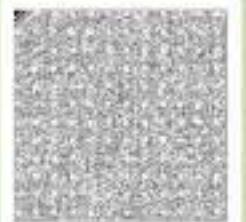
권익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8월 1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25개 국내 법학전문대학원과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에 따라 권익위는 여름방학을 맞는 법학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이달부터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실무수습은 재학생들이 부패영향평가,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등 권익위의 주요 업무를 2주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이 권익위의 여러 부서를 순회하며 실무자와 함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시설 및 예산을 확충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무수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ACRC NEWS

권익위, 26일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 시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가 지난달 19일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서울 풍문여고에서 개최한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의 우수작을 발표하고, 26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청렴한 세상 좋은 글쓰기 대회」에는 지난 4월 4일부터 5월 11일까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 권익위 홈페이지에 응모한 4,969명(초등학생 2,830명, 중학생 1,463명, 고등학생 676명) 중 예선을 통과한 314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일반부는 1,371명이 응모하였다. 초등부에는 올백의 문턱에서 잘못 채점된 한 문항으로 고민하는 상황을 정직과 관련지어 실감나게 표현한 대전 상지초(6학년) 최지예 어린이가, 중등부에는 청렴과 관련해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와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형상화한 제주 중문중 2학년 정예영 학생이 수상했으며, 고등부에는 대구 대구고 2학년 조진혁 등 부문별로 각 16명, 지도교사 각 6명 등 66명이 수상했다. 일반부에는 일반국민, 공직유관단체 부문, 공무원 부문 등 부문별로 8명씩 총 24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



우리 SNS 친구할까요? – 국민권익위원회 SNS 고객 수 전 부처 중 2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밀착소통을 위해 4대 SNS(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fan, 트위터 follower, 미투데이 친구 수의 합계가 전 중앙행정기관 중 2위에 해당한다.

〈부처별 SNS 정책고객 현황〉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순위	부처명	합계	페이스북 Fan	미투데이 친구	트위터 Follower
1	통일부	87,207	62,393	14,041	10,773
2	국민권익위원회	75,556	57,092	13,039	5,425
9	00000	25,479	5,903	10,647	8,929
10	000	24,949	1,803	10,408	12,738

찌는 여름, 시원하고 유쾌한 자료가 넘치는 국민권익위원회 SNS를 방문하여 친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국민권익위원회 SNS〉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미투데이 me2day.net/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요즘 yozm.daum.net/acrc0229

이번호 <국민권익>도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국민권익>은 독자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를 통해 보내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을 환영합니다.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네 분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9월 22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지난호 정답



틀린그림찾기

사진에서 달라진 부분 3곳을 찾아 독자엽서에 체크해 주세요.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틀린그림찾기에 응모하신 분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고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푸른 농지밭의 전경,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통해 보성 농지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더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실렸으면 좋겠어요. 또한 <국민권익> 소식지 답게, 국민권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더 많이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묵(경상북도 상주시)

5+6월호에 실린 기사 중에서 '바닷길이 열리자 솔내음 마을이 웃었다'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군사시설이 있어 다른 동해바다보다 낙후되었던 '사천해변'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신 '오형조 조사관'의 모습이 멋졌습니다. 올 여름 휴가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여유가 된다면 '사천해변'으로 가고 싶네요.

최미숙(경기도 부천시)

포커스 온에 소개된 영화 '체인질링'을 보았습니다. 2008년도 작품이지만 사회적 책임과 정의를 묻는 내용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를 통해 독특한 시각에서 국민의 권리, 권익을 지키는 일들이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영화칼럼만큼 다른 코너들도 모두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할께요.

강주희(전북 고창군)

'사랑이 있는 곳에 미움도 있다'는 기사를 읽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삭막한 사회 생활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곤 했는데, <국민권익>의 기사를 읽고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서 제 생각을 발전시킬 기회가 됐네요. 더 알차고 유익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송성희(전남 순천시)

국민의 소중한 권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동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 신속하게 심판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행정심판대상

운전면허 취소 · 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 각종 국가면허, 인 · 허가 관련 처분 /
영업정지 · 과징금 · 부담금 부과 처분 / 국가시험의 불합격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등

청구방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 가능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인터넷 또는 처분청에서 서식을 교부받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

소관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행정기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

대한민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

세계 동계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www.acrc.go.kr